

## News

### 금융지주, 한국판 뉴딜 지원에 최대 50兆 푼다

디지털타임스

한성수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비공개 조찬모임을 갖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협력을 요청  
하나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은 각각 10조원의 금융지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4대 금융지주가 한국판 뉴딜에 쏟아부을 자금은 최소 50조원

### 금감원, 라임펀드 전액 반환 결정시한 연기 가닥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100% 반환 수락 결정 시기를 연장해달라는 판매사들의 요청을 수용할 전망...키코 사태(5차례 연장)처럼 장기화될 가능성  
판매사들은 각각 이사회를 열어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100% 반환 수락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금감원에 시한 연장을 요청

### 코로나에 긴급유동성 풀었더니 예금 '사상 최대' ...109조 폭증

매일경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수신이 1,858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8조7,000억원 급증...반기 기준 은행 수신이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  
관계자, "코로나19 이후 저축 증가가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격의 자금 비축이라면 소비 활성화 대책의 강도도 더 높게 끌어올려야 한다"

### 신한금융그룹 2분기 순익 8천731억원...작년동기비 12% ↓

연합뉴스

상반기 순익 1조8천55억원 5.7% ↓, 순이자마진 1.84% 21bp ↓...코로나19 관련 총당금 약 1천850억원, 금융투자상품 관련 총당금과 비용 약 2천억 쌓거나 집행  
"향후 자산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총당금 적립과 최근 금융투자상품 부실 이슈와 관련, 판매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비용 집행의 결과"

### 계좌 개설·후불결제...네이버·페이코, 대출 뺀 모든 은행 업무 가능

한국경제

14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는 전자금융법은 핀테크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업무 허용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핵심...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라는 신규 업종을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어...은행과의 차이점은 이자 지급과 대출이 금지된다는 것뿐

### 보험업계, 8월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 앞두고 '분주'

파이낸셜뉴스

생보사들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고 상품 개발 및 효율 체계 개선에도 속도 낼 수 있을 것...인슈어테크 분야 스타트업에게도 큰 비즈니스 기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의 연령이나 소비패턴 등에 따라 상품을 선별하고 추천해주는 등의 혁신 서비스나 상품 개발이 활발

### 1.7조원 페이 충전금 외부에 예치 의무화

매일경제

지난해 말 기준 선불충전금 규모가 1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업체가 갑자기 망하거나 투자에 실패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위험에 노출  
금융위, 3분기 가이드라인 통해 이용자 자금 보호...간편송금 등 자금이체업체는 이용자 자금의 100%를, 대금결제업체는 50% 이상을 외부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 방식으로 보호

### HDC현산, 금호·아시아나에 "인수상항 재점검, 재실사 요구"

한국경제

HDC현산,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 정확하지 않고 명백한 약속 위반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확인하려면 인수 계약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반기 재무제표 대비 부채와 차입금이 급증했다는 점을 사려야 한다는 입장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